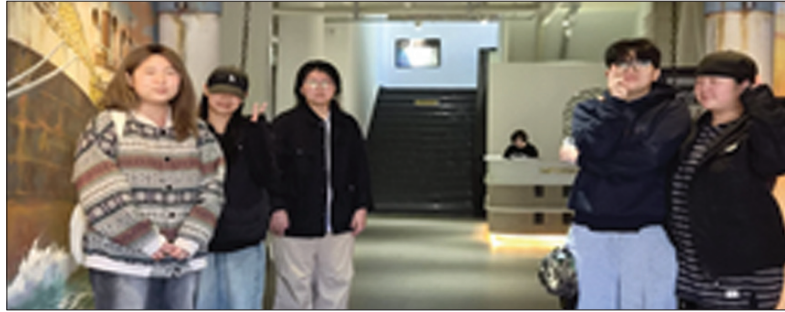


# 군산 새로운 근대 문화 관광 명소 기대

국립군산대,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홍보 프로젝트 추진... 홍보 영상·기념 굿즈 개발 주목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6월 30일 ICC 특성화대학부 산업디자인학부에서 2026 국립대학육성사업 'KSNU Insight+'의 일환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립군산대 산업디자인학부 조순길 교수의 지도로 진행되며,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6명(강수현·박서진·박문지·최수인·김지호·배은빈)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과 기념 굿즈 개발에 나서 주목 받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6월 30일 ICC 특성화대학부 산업디자인학부에서 2026 국립대학육성사업 'KSNU Insight+'의 일환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조선식량영단 건물로, 근대 역사와 군산의 지역성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른 근대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를 직접 답사하며 건축물의 보존 상태와 전시·체험 콘텐츠, 방문객 동선 등을 살폈다. 이후 관련 자료 조사, 영상 릴스 레퍼런스 수집, 홍보 콘셉트 기획, 굿즈 디자인 시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군산시가 추진 중인 활성화 계획과 요구사항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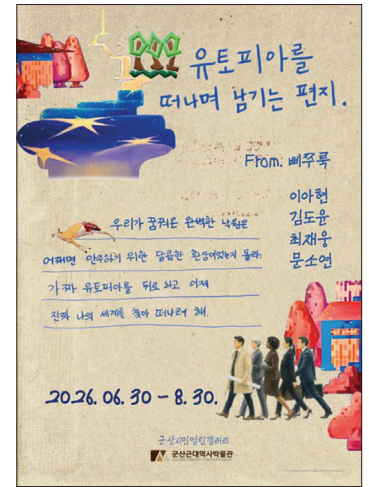
받고, 건물 자체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방향과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기념 굿즈 아이디어 등을 논의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최신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SNS 기반 숏폼 영상 제작과,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담은 굿즈 개발이다.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릴스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굿즈 디자인은 조선식량영단을 상징하는 쌀가마니 등 대표 요소와 건물의 근대 건축적 특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방문객들이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서의 경험을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디자인 방법론을 지역 사회 현

안에 적용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및 참여형 서비스 디자인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 또한 학생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결과물이 실제 문화유산 홍보와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는 교육 모델로 평가된다. 국립군산대 산업디자인학부는 오는 8월까지 프로젝트 결과물을 수정·보완한 뒤, 군산시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제 홍보와 현장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던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가 군산의 새로운 근대 문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 삐쭈룩 단체전 '유토피아를 떠나며 남기는 편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청년 작가 4인 현대미술 작품 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박물관 2층에 위치한 시민열린갤러리에서 6월 30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삐쭈룩 단체전 '유토피아를 떠나며 남기는 편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의 '유토피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이 담긴 청년 작가 4인(김도윤, 문소연, 이이현, 최재욱)의 현대미술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리스어 'U(없다)'와 'topos(장소)'의 합성어로 본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이상향'의 대명사로 통용된다. 삐쭈룩의 이번 전시는 유토피아가 가진 이중성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이상향을 뒤쫓는 현대인의 무한 경쟁 상황 △편리함에 의해 묵인되는 폭력성 △무목적성으로 편승하는 현대사회의 이상적 풍경 △역설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시스템 △현대인의 소속감과 개인의 정체성 문제 등 우리가 이상향이라 믿어온 것들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유토피아인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작품을 전개한다. 삐쭈룩은 2025년 설립된 비영리 예술단체로, 같은 해 5월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첫 번



째 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입을 삐죽 내미는 모양새'를 뜻하는 단체명처럼, 참여 작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역·성별·나이·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삐쭈룩' 내보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현재 참여작가들은 전북과 서울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활발히 역량을 펼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 군산시립교향악단, 낭랑특집 콘서트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월 20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3회 기획연주회 '낭랑특집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이명근 예술감독의 지휘로 진행되며, 무소르그스키의 교향시 '민동산의 허룻밤'을 비롯해 존 모스의 '할리우드 블루버스터', 이안 디탈링의 '칼리 가리 박사의 밀실', 존 캔덴의 '할로윈', 존 윌리엄스의 '주라기 공원' 등이 연주된다.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전석 5,000원으로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전주 관련 유물 수집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전시와 연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 지역 관련 유물을 수집할 계획이라고 6월 30일 밝혔다. 수집 대상 유물은 △전주 역사·문화 및 인물 관련 유물 △조선왕실 및 궁중문화 관련 유물 △어진·표준영정 제작 및 지정 관련 유물 △음식, 소리, 출판, 한지 등 전주 문화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전주 독립운동 관련 자료 △근·현대 전주 지역 마을 관련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증·수탁할 계획이다. 모든 유물은 기증 및 기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유물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도난·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 중중이나 공동으로 소유한 유물 등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등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서류 접수 후 자체평가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유물의 가치와 평가액을 결정할 후, 화상 공개를 통한

도난문화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유물기증·기탁증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유물 기증 및 기탁 신청은 대상 유물과 함께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에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부피가 크거나 기타 사정으로 현장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전화로 문의 후 진행하면 된다. 하재식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이 시간이 갈수록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다"면서, "박물관은 온도와 습도, 벌레 등 유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된 시설로,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수집·보존된 유물이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한·중 문화예술 교류·협력 확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중국 광저우 AIO미술관과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지난 6월 27일, 중국 광저우의 AIO미술관(Art Institute of the Orient)과 전시, 학술연구, 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 기관은 △전시 교류 △학술연구 협력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술관 운영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AIO미술관에서 개막한 김병종 화백의 개인전 'Kim Byungjong: Fantasy of Life'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AIO미술관은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연면적 약 4,500㎡ 규모의 국제 현대미술 연구·전시·교육기관이며, 미술관은 1914년 건립된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 양식의 건축물로, 뛰어난 역사성과 건축미를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동양미술 연구와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며 세계 각국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국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허정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장과 왕성킹 도로시(Wang Sung King Dorothy) AIO미술관 관장은 "김병종 화백의 예술세계를 매개로 한·중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